

현대제철 노동자 쇠물에 빠져 사망

검·경 강제부검 시도 ... 노조, “살인기업 비호 중단, 현대제철 대표이사 범죄 처벌 촉구”

현대제철이 죽인 중대재해 노동자를 검찰이 강제부검으로 한 번 더 죽이려 한다.

3월 3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3월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최 아무개, 57세 노동자 시신을 탈취하려 했다.

유족은 산재 사망이 분명하고, 현장조사·사고 과정 조사·회사 책임 조치가 우선이며, 시신을 훼손하는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유족에게 공무집행방해 처벌 운운하며 협박했다. 유족과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재해자 시신 탈취를 저지하고 있다.

현대제철 별정직 무기계약직인 최 아무개 노동자는 3월 2일 오전 5시 40분쯤 냉연 1공장 도금용 아연 용액을 만드는 가로·세로 3m, 깊이 5m의 용기(포트)에 빠져 숨졌다. 이 포트는 고온으로 녹인 도금물질을 485℃의 액체상태로 담고 있는 용기다.

금속노조는 3월 3일 당진 현대제철 B지구 정문 앞에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중대재해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사업주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재해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제철은 해당 포트작업 공정에 명시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방호막,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현대제철지회는 계속 단독근무지 인원충원 2인 1조 근무를 요구했고, 1월 말 노동부 천안지청장에게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자본과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혼자 일하던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최근 5년 동안 당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여섯 명이 숨졌다.

노조는 “검찰·경찰이 더 밝힐 사망 원인은 없다. 검찰·경찰·노동부는 살인기업 방패막이 노릇 중단하라”라며 “명백히 드러난 현대

제철 사업주의 불법 행위와 노동자 살인 범죄를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중대재해 책임 은폐 강제부검 중단 ▲현대제철 대표이사 즉각 사과 ▲중대재해 책임자 대표이사 구속·처벌 ▲노동부 동일·유사공정 작

업중지 명령 시행 ▲노조 참여 위험성 평가·특별근로감독·전체 공정 안전보건시스템 진단 ▲목격자·동일부서·동일업무 노동자 중대재해 트라우마 메뉴얼 상담·치료 조치 등을 요구했다.

최 아무개 재해 노동자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현대제철 별정직으로 입사했다. 현대제철은 2020년 1월 16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금공정 등 위험공정 외주화를 금지하자, 범망을 피하려고 사내하청 공정에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별정직 투입이라는 꼼수를 만들었다.

현대제철은 일을 구하기 쉽지 않고, 관리가 편하며, 60세 퇴직 후 직업성 질병 산재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를 우선 채용했다.

“현대차 · 현대제철은 대한민국 법 좀 지켜라”

현대제철 불법과건 정규직 전환 결의대회 ... “현대차 재벌, 다단계 착취 · 노조 파괴 대표선수”

금속노조가 현대제철 불법과건 범 죄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처벌과 현대제철 불법과건 피해 노동자의 정규직 즉각 전환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3월 2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 불법과건 즉각 정규직 전환, 노동부 시정명령 · 법원판결 이행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 비정규 단위, 투쟁사업장 등 조합원이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을 가득 채우고 한목소리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다.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결의대회를 열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노동자 삶은 벼랑 끝이다. 저임금,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문제 때문이다”라며 “다단계 착취구조를 만든 대표 재벌이 현대차 재벌”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현대차 재벌은 다단계 착취도 모자라, 현대위아와 현대제철에서 불법과건 확정판결 받고도 자회사를 만들어 노조 파괴를 획책하고 있다”라며 “당장 불법과건 노동자 직고용하라. 노조 탄압 당장 중단하라”라고 현대자동차그룹을 향해 엄중히 경고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올해 불법과건 범법자 처벌과 법원판결 이행 투쟁을 벌인다”라며 “순천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투쟁



은 너무나 정당하다. 현대제철 순천 · 당진 노동자들과 함께 금속노조가 힘차게 투쟁해 정규직화를 쟁취하겠다”라고 선포했다.

이병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결의 발언에서 “오늘 파업을 결행하고 코로나 19를 뚫고 양재동에 모인 조합원 동지들이 자랑스럽다”라며 “불법과건 범 죄자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과 정의선 회장이 젓값을 치르길 바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병용 지회장은 “현대위아 강제 인사명령이나 현대제철 공정 재배치는 자회사 핏수로 불법과건 범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자본의 음모”라면서 “여기에 맞서는 투쟁은 자본의 음모 파탄 내는 투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용 지회장은 “오늘이 세 번째 상경투쟁이다. 대선후보가 토론하는 방송국에서 108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작자들이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애써 무시하며 재벌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진보정당으로 지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범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오늘 새벽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사망했다”라며 명복을 빌었다. 최범규 수석은 “자회사 사태 당시 무리한 공정 재배치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노조가 수십 번 외쳤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귀담아듣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최범규 수석은 “현대제철이 이번에 5개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목숨과 같은 일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라며 “모든 조합원이 투쟁해 정확한 공정 재배치 기준을 만들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만들겠다”라고 결의했다.

이날 대회를 마친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마지막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여는 여의도 KBS로 이동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08배를 했다.

인간차별 · 임금차별이 LG그룹 정도 · 인화경영?

LG전자 자회사 지회 공동기자회견 ... “재벌 다단계 이윤 착취 · 차별 중단하라”

하이프라자(LG베스트샵), 하이텔서비스, 하이엠솔루텍 등 LG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하라” 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하이프라자바른노동조합지회, LG하이텔서비스지회, LG하이엠솔루텍지회는 3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자회사 차별 멈춰라, LG전자 자회사 노동조합 공동기자회견’ 을 열었다.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에서 LG전자가 제품 판촉·영업, 전자제품·에어컨 수리 등 LG전자 직접고용 노동자와 같은 일하는 자회사 노동자를 천지 차이로 차별 처우한다고 규탄했다.

가전 매니저인 이제현 금속노조 서울지부 LG하이프라자바른노동조합지회장은 “LG전자는 성과급 기준을 결정하고, 자회사에 기준보다 낮은 성과급을 적용했다. 심지어 올해 지급을 연기했다” 라고 비판했다.

이제현 지회장은 LG전자가 LG베스트샵 직원 중 선임 이상만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노동자 복지·안전사항도 차별한다고 밝혔다.

이제현 지회장은 “자회사 노동자들이 잘 못 만들어서, 잘 팔지 못해서, 잘 고치지 못해서 문제라면 개



선 노력을 할 수 있지만, LG전자의 이유를 밝히지 않는 차별 앞에서 무기력과 분노를 느낀다” 라고 토로했다.

서비스 엔지니어 이상열 금속노조 서울지부 LG하이텔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서비스센터 수리 기술직과 콜센터 상담직은 근속연수가 쌓이고 실적이 좋아 승진해도 호칭만 바뀌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라며 “본사 서비스와 차이 없는 동일 노동을 하는데 자회사 노동자는 임금·성과급 등에서 차별을 당한다” 라고 지적했다.

CIQ 엔지니어인 김태훈 금속노조 서울지부 LG하이엠솔루텍지회장은 “LG에어컨·냉난방기 설치, 품질관리를 한다. LG전자 CS경영센터 소속 노동자와 같은 작업을 한다. LG전자를 위해 일하는데,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태훈 지회장은 “LG전자 CS경영센터 사업 부분 성과급이 479%라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성과급 정했는지 자회사 노동자는 알 턱이 없

다” 라며 “똑같은 일하는 우리는 반에도 못 미치는 성과급을 받는다” 라고 꼬집었다.

LG전자 자회사 LG하이프라자는 지난 5년 사이 매출이 100% 성장했다. 하이텔서비스는 50% 성장, 하이엠솔루텍은 20% 매출 신장기록을 했다. LG전자는 같은

일하는 자회사 노동자에게 한참 낮은 임금을 주고 있다. LG전자는 매출이 올라도 자회사라는 이유로 성과급조차 통제하고 있다.

LG전자 자회사 지회 대표자들은 “한국의 재벌그룹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당연히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이윤을 축적하고, 차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라면서 “LG전자도 자회사 구조를 이용해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다” 라고 규탄했다.

지회 대표들은 “LG는 한국의 4대 그룹이라면서 사회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도경영·인화경영을 이야기하는 이중 태도를 보인다” 라며 “우리 LG전자 자회사 노동조합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다양한 투쟁을 펼칠 것이다” 라고 천명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지난 2월 16일부터 모금으로 비용을 마련해 LG 자회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와 LG 사측의 부조리 중단을 호소하며 트럭시위를 벌이고 있다.